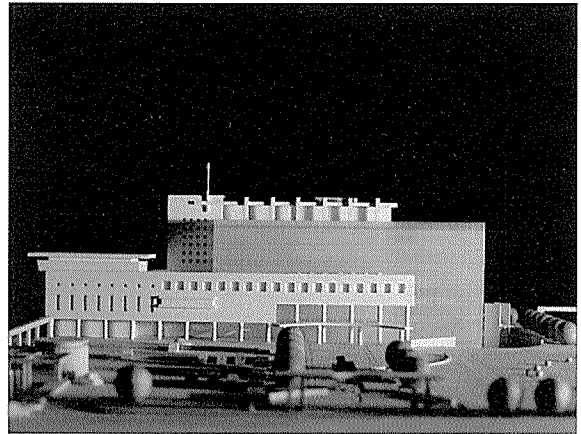


최삼영 건축의 조용한 울림

The Tranquil Resonance of Choi Sam-
young's Architecture김정후 / Studio O.N.E.
by Kim Jung-Hoo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청사 건물의 신축과 그 지역의 특성이나 특화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각종 박물관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사들이나 박물관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편 타당한 공통적 측면이 존재한다.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며 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등으로 시작하는 너무나 막연하고 광범위한 설계지침 말이다. 이러한 관공서 현상에 임하는 건축가들은 역시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고 동시에 관공서 프로젝트가 가지는 한계를 적절히 의식하며 루지(?) 않는 디자인을 제시하게 마련이다.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관공서 현상설계에 등장하는 작품들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작품들을 전반적인 하향평준화로 유도하는 경우까지도 종종 보게 된다. 한편으로 우리의 관공서 건물에서

With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policies, the architectural community was met with large demand of work for its administration offices and their related projects, such as local museums that takes on the symbolic role of displaying the regional colors. Though their circumstances vary, most of these offices and museums share a facet of universality - with the competition for their designs is attached the general if not vague guide to supply "a space for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their citizens reflecting the tra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rchitects participating in such competitions approach the design with a mind suitable to such demands - to fully acknowledge the limits of such projects and submit a design that isn't so 'over the top.' As a matter of fact, in result, it is often difficult to choose from so many similar suggestions, in many cases whose quality is generally averaged in an undesirable level.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unnecessary to emphasize



고양시 덕양구청사 모형

요구되어지는 기능과 공간들은 새삼스럽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경력의 건축가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관공서 프로젝트의 승패는 외부공간을 포함한 배치 계획과 건물의 조형성 혹은 상징성 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건축가 최삼영의 가장 큰 강점은 여기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독립 후 초기부터 현상설계에 집중함으로써 스스로 게임의 법칙과 생리를 체험하였고, 이러한 체험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철저하게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현상설계에서 요구되어지는 보편 타당한 해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철저한 건축적 퀄리티(quality)를 유지하는 작품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덕양구청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목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가 공간으로부터 독립한 후 초기부터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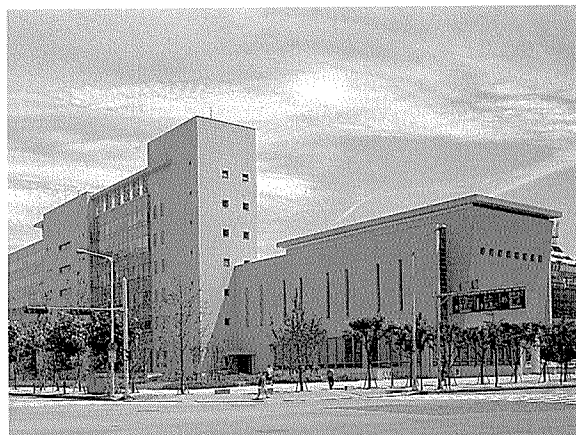
the degree of tightness with which the functions and spaces requested in these projects are defined. Since an architect with some experience can easily come up with a solution to the given problems, the deciding factor in these competitions concerns in large part the overall layout including the exterior spaces, and the formal and symbolic qualities of the building - the same area where we find the strengths of architect Choi Sam-young's works. Ever since establishing his own firm he has focused his designs on competition projects, going through and learning the rules of the game and coming up with some strategies of his own through the experience. It is a strategy of maintaining a valorization between the requested universality and an architectural quality within the project.

There are several aspects that deserve our attention in the Deogyang-gu Office. First is its formal composition - ever since he left Space to establish his own firm, he has been



지해오고 있는 형태구성 방법으로서 시각적으로 명쾌하게 구분되며, 동시에 솔리드(solid)함과 보이드(void)함의 적절한 비례를 통하여 시각형 매스의 조형적 추상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필자는 '추상적 채나눔' 정도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현대 한국건축에 있어서 건축가 이일훈의 주요 개념으로 대변되는 채나눔의 원리는 전통건축에서 보여지는 공간구성의 수법을 현대 주거에 적용 가능한 하나의 해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주로 평면상의 공간을 대상으로 한 '실제적 채나눔'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최삼영의 채나눔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주로 1,000평 내외 혹은 그 이상의 비교적 대규모 공공건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즉, 이러한 대규모 공간에서의 평면적 채나눔은 사실 크게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사용하는 채나눔 기법은 공간과 형태구성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maintaining a coherent method of design in the works, which is one of visual clarity. The solid and the void arranged in appropriate proportion, the cubic volumes are given an abstract formal dimension. The method used in this aspect is what I would call 'abstract articulation of space.' The principle of spatial articulation, often referred in Korean architecture as architect Lee Il-hoon's primary concept, is one strategy of spatial composition derived from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is applied in contemporary housing projects. It is usually a practical method of articulation, adapted in planimetric planning. The objects of articulation in Choi's work, however, are large buildings with areas of 3000m² and beyond. It is apparently different from those that were used in small housings. Such large scale of a building can even invalidate a method of spatial articulation, and to differentiate it from the previous concept I shall label this as an abstract tool - forming relations or interference among buildings



기능의 건물들간의 '관계맺기' 혹은 '간섭하기'를 위한 변형된 방법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추상적 채나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관공서 건물들이 형태적으로 아직도 박스형태의 강한 대칭성이나 중심성 등을 기점으로써 그 권위적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과 이러한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터득된 방법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대규모 건물에서 얻기 어려운 깊이감이 느껴지는 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깊이감이 덕양구청사의 경우 저층부에서 회랑과 연결되어짐으로써 더욱 배가되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삼영은 전통건축의 채나눔에서 사용되는 원리 중의 하나인 음양론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각각의 공간들을 분류하고, 다시 이들을 적절한 매개체를 이용하여 통합시키는 원리까지도 시도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건물이 놓여지는 땅과 건물이 만나는 방법, 분절된 매스와 매스가 만나는 방법, 다시 건물과 외부공간

of diverse functions, it is useful in the attempt to provide some variety to spatial, formal simplicity. I believe it is a method naturally won from Choi's previous works, in his constant strive to go beyond the symmetrical and rigid planning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s, often drenched in authoritarian atmosphere, and has presented this work with a sense of depth not usual in a building of such size. This depth is further enhanced in Deogyang-gu office, with its lower portion connected to the wings. Choi actually researched into and made use of the principle of yin and yang from our traditional methods of articulation, classifying each space in order to integrate them through another medium. It is reflected in his work that he spends considerable amount of time in the way the building meets the ground, how each separated volumes meet together, and the methods that combine the building with its surrounding exterior. In Deogyang-gu Office, the office portion chose curtain wall as its skin and becomes the



이 만나는 방법에 설계의 많은 시간을 투자함을 알 수 있다. 덕양구청사의 경우는 업무동은 유리 커튼월을 사용하여 주요한 볼륨을 형성하고, 이를 배경으로 민원동은 화강석 판재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코아부분과 강당 부분 등이 모두가 독립적인 형태를 지니면서 동시에 깊이를 가지며, 끼워진 모습을 취함으로써 여러 개의 '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기능적 매스들은 모두다 다른 형태의 입면 디테일을 가짐으로써 시각적으로도 구분되어 지며 동시에 다양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덕양구청사의 경우는 배치계획에서부터 평면, 입면계획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격자 체계를 구성의 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전체적인 형태가 선(線)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선적인 구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층부에 사용된 판벽과 스펀드럴 부분의 수평띠

dominant volume of the project, while the part for civic affairs becomes its backdrop with its granite finishing. Upon this basic structure, the core area and the auditorium all are established as independent forms with depth - the insertion of these objects into one another creates multiple layers within the work. These functional volumes are endowed with different details in their elevation, and thus maintain visual distinction from each other.

The second characteristic aspect of this work resides in its compositional frame of the grid, which is placed on almost every facet of the design - from principle layout to the planning of plan and elevation. This is also a proof that the whole of the office follows a linear composition. What most stands out in the linear planning is the use of plate wall in the lower portion and the stripe in the spandrels. The lines of each volume are superimposed upon each other, and the overall effect is a design strong on lines than planes. The plate wall used in this building,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건물을 이루는 선들은 모두가 일정 부분씩 중첩되어 구성됨으로써 면보다 선이 더욱 강조되어짐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건물에서 사용된 판벽은 가벽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최삼영 건축의 전 작품에 등장하는 중요한 건축적 모티브이다. 이 건물에서 판벽은 앞뒤로 건물을 감싸안는 듯한 모습을 취하면서 수평적으로 강한 통합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경쾌함이 부여됨으로써 청사가 지나는 권위 역시 상당히 완화되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얻고 있다.

셋째는 무형의 외부공간과 유형의 건물을 엮어주는 통합의 원리이다. 최삼영의 외부공간에 대한 관심과 그 처리 방법에는 분명한 원칙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건물에서 사용된 형태를 그대로 여운을 남기듯이 일정 부분씩 외부공간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이다. 크게 덕양구청사에서는 네 개의 원이 사용되고 있다. 주출입구 부분의 진입광

except that it is one closer to a partition, is a constant and important element in the works of Choi. The plate walls encompass the building from both front and rear, generating a strong sense of horizontal integration. It also provides a light touch to the building, relieving its program of government facility of authoritative weight.

The third is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that links the formless exterior with the built form. One can easily detect the presence of an apparent concept in the way Choi takes interest in the outdoor spaces and deals with them in the design process. It is how he utilizes formal ideas from the building in the exterior, expanding its concept as if to suggest a trace of the internal structure. In this case, what were applied were four circles. The entrance plaza and court for citizens in the main entrance area seems to be a formal concern and doesn't bear much meaning. But the canopy of the entrance impresses its users beyond its



장과 구민마당은 형식적인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진입구의 캐노피는 사각형 매스를 배경으로 마치 도시를 감싸안는 듯한 형태를 취함으로써 그 크기에 비하여 비교적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이 캐노피의 선이 그대로 지면으로 연장되고, 기벽과 바닥패턴을 통하여 상징광장으로 처리됨으로써 외부공간과 연계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내부와 외부공간을 초기부터 염두에 두고 디자인함으로써 마치 대지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도형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 가 본 바로는 아직은(?) 외부공간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상설계를 주로 하는 건축가가 프로젝트에 상관없이 동일한 자신의 건축개념을 유지한다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된다. 건축가의 생각이 다른 것과 상충되었을 때 우선 순위가 될 수 없고, 또한 이를

size, with its arms open to the city behind the cubic volume. The line of this canopy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ground, and, with the use of partition and floor patterns, forms the symbolic plaza, creating a close link with the outdoor space. This method, encouraging the architect to execute the design with both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from the outset, enables one to perceive the whole site as a singular big shape. It is unfortunate that, at the time of my visit, the outdoor spaces were not fully realized according to Choi's plan.

It may well be worthy of note that an architect eagerly participating in various design competitions has succeeded in maintaining his idiosyncratic vision of architecture through out his works, especially under the circumstances of Korea. The architect often becomes vulnerable when his ideas are met with oppositions, since many are not in a situation where his claims are primary. Beginning with Deogyang-gu Office, the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덕양구청사를 시작으로 최삼영이 현상을 통하여 당선된 건축물들이 최근에 하나 둘씩 완공되어 등장하고 있다. 중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점은 이제부터라 생각된다. 필자가 언급한 그의 건축에서 보여지는 특성들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언급한 보편타당함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타당함이 적어도 지금은 그리고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설계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승산있는 게임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원칙이 될 수 없다. 일정 시간이 지나 이것이 또 하나의 진부함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건축이 어떠한 진보 혹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건축가 최삼영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커다란 벽이며, 이제부터 그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competition-winning projects of architect Choi Sam-young are now being realized one by one. It is from now that becomes at once difficult and important. The characteristics of his works that I have pointed out are fundamentally based on the premise of universality, mentioned at the beginning. Such universality will serve as a reference point for others and prove to be fruitful in the competitions for now and the near future, but it does not contain an absolute value. As time goes by, this will one day be accepted as another banal cliché, and Choi will have to break new grounds and progress further into this field. This problem of constant renewal is what he faces today, and only through serious researches and experiments will he find his way out.